

'비판적 문화연구'로 바라본 미디어 문화

더글러스 켈너의 《미디어 문화》

원용진

서강대 교수 · 언론학

문화산업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던 비판이론(프랑크푸르트학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판이론과 맥을 같이하긴 하지만 점차 유순해져 비판정신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연구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대중문화란 이름 대신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김수정, 정중희 옮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더글러스 켈너의 저서가 서두에 내보인 화두였다. 그 화두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이론과 연구에 '비판적 문화연구'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비판적 문화연구'를 통해 사회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제고하는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이념 상존

그에 따르면 '미디어 문화'는 상업적 문화이기도 하고 하이테크 문화이기도 하다. '미디어 문화'는 그의 이론적 형님격인 비판이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순종과 굴종의 문화도 아니고, 대중추수주의자(cultural populists)들이 내세우는 저항의 문화도 아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념의 모양새를 갖춘 문화들이 모순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람보〉가 있는가 하면 〈Do the Right Thing〉이 있고, 〈Miami Vice〉가 있는가 하면 〈플래툰〉이 있다. 레이저니즘과 같은 보수적 정치상황을 옹호하고 지속시키려는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그 보수성에 대항하고 피지배집단의 저항정신을 자극하는 텍스트가 상존하는 곳이 바로 '미디어 문화'다.

그래서 '미디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화연구'는 지배에 대해 비판하고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미디어 문화'를 통해 재생산되는 방식들에 대해 개입한다. 또한 진보적 텍스트의 장려를 통해 민주주의적 기획을 진전시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결국 '비판적 문화연구' 자체가 엄격한 정치성을 갖는 정치적·이론적 실천임을 켈너는 강조하고 있다.

켈너는 포스트-포비아(post-phobia)에 걸린 자신을 이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든 포스트 인식론으로까지 넘어가지 않으면서 현대의 대중문화를 적절히 비판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

켈너의 야심찬 저서는

'비판적 문화이론'이 덜

포용적인 탓에 미디어 문화의

전 측면을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미디어 문화'의

입문·지침서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포스트 인식론에 대한 반감은

학문적 논의의 '아젠다'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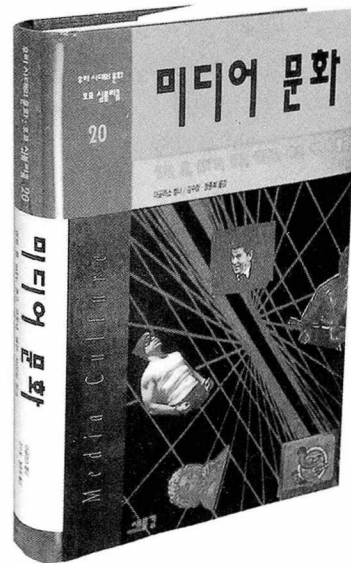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탓인지 문화(이론)의 과잉담론과 초스피드적 수입을 겪고 있는 우리 눈에는 그의 고집이 촌스럽게 비추어지기도 한다. 꼼꼼하게 텍스트의 생산과정과 기호의 배열자체를 분석한 노고에 비하면 건질 만한 것, 새로운 것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그가 '미디어 문화'를 단선적인 지배공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이념들의 공간 혹은 격전장으로 설명한 것은 그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 초차도 어찌 어색해보인다. 텍스트의 다원주의가 곧바로 사회내 이념들간의 경쟁이나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수용자집단)와 텍스트간의 고리가 빠져 있어 헤게모니적 경쟁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켈너의 포스트 포비아는 미덕보다는 폐해를 더 많이 양산해내는 것처럼 보인다.

텍스트중심주의의 아쉬움

그가 저서에서 행했던 것처럼 레이저니즘이라는 보수적 시기와 텍스트를 연결짓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텍스트란 역사적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적 텍스트와 진보적 텍스트들만이 만나서 의미의 싸움을 하진 않는다. 보수적으로 보이는 텍스트들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가 군데군데 비판하고 넘어간 미디어 문화의 수용자에 대한 관심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저자가 저항 물신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 미국식 문화연구가 갖는 미덕을 그렇게 단칼에 거부할 이유는 뚜렷해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비판적 문화연구'를 더 운택하게 해줄 구석도 있어 보이는데 그는 너무 쉽게 입장을 정리해버리고 만다.

이처럼 켈너를 비롯한 미국의 텍사스 문화연구학과 (이렇게 불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켈너, 뉴콤 등을 포함한 텍사스대학의 학자들)는 텍스트들의 다원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듯하다.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본질주의적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다. 보수적 텍스트, 진보적 텍스트 식으로 텍스트 자체로 그 이념과 효과가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해나가는 것이다. 텍스트의 죽음이나 수용미학의 가능성을 내세우는 새로운 인식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텍스트 중심주의를 벗어나 좀더 정교한 분석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텍스트내 언어의 배열을 대체로 상징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우를 범하게 마련이다. 즉 언어 재현을 위하고 의미를 내기 위한 것으로만 파악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론이나 담론이론에 입각하여 언어의 선택과 배열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히 상징적 차원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언어 자체가 스펙타클이 되기도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등의 물질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켈너가 예로 든 것처럼 〈Miami Vice〉는 텍스트내 상징들의 배열로만 설명될

수 없는 감수성의 기호들을 담고 있다. 그 기호들은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지표로서 가슴에 흔적을 남긴다. 텍스트내 기호들의 결(이는 결코 텍스트 분석으로 찾아지는 것들이 아니다)이 충격을 주고 우리의 몸에 각인된다. 이쯤에 이르면 텍스트는 상징적 기호의 그릇이 아니라 욕망을 자극시키는 물질적 지표의 지위에 도달하게 된다. 도대체 이와 같은 감수성과 욕망에 대한 설명이 —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 포스트 인식론의 도움없이 가능한 것일까? 저자가 그어 버린 인식론적 담이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화분석 연습의 지침서

그가 중심축으로 두고 있는 비판이론은 지금의 '미디어 문화'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가 구태여 영국식 문화연구를 빌려온 것도 그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리라. 거기까지가 그가 인내할 수 있는 학문적 교감이다. 계몽주의, 비판정신을 깡그리 뒤엎으려 하는 포스트 인식론으로까지 가기는 아무래도 의도를 하는 것 같아 망설인다. 부지런히 보드리야르, 푸코를 읽고 주석서, 독해서 등을 엮어보지만 열린 가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자 스스로 그는 포스트 인식론과의 단절로는 '미디어 문화'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아들일지는 할까? 켈너의 야심찬 이 저서는 '비판적 문화이론'이 덜 포용적인 탓에 미디어 문화의 전 측면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미디어 문화'의 헤게모니 주도방식 등을 배우는 입문서, 그리고 문화분석 연습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저자의 이론적 결을 살려낼 정도로 번역도 깔끔해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일반 대중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그가 내세우는 포스트 인식론에 대한 반감은 학문적 논의의 아젠다(agenda)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직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에 관한 정치한 토론을 가져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

세물결/A5신/600면/23,000원